

| 번호: OP-M-001 | | | | | |
|--|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
| 제 목 | 장애인의 천공성 충수돌기염의 위험요인 Risk Factors of Ruptured Appendix in Disabled Persons with Acute Appendicitis | | | | |
| 저 자 및 소 속 | 홍지영1), 이진용2), 박종혁2), 김부경2), 나백주1), 김용익2), 김윤2) 1)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, 2)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Jee-Young Hong1), Jin-Yong Lee2), Jong-Hyock Park2), Boo-Kyoung2), Baeg-Ju Na1), Yong-Ik Kim2), Yoon Kim2) 1)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, Konyang University, 2)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, College of Medicine, Seoul National University | | | | |
| 분 야 | 의료관리 [보건의료의 질] | 발 표 자 | 홍지영 전공의 | 발 표 형 식 | 구 연 |
| <p>목적: 이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충수돌기염의 천공률과 천공에 대한 관련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충수돌기염 천공률의 차이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비장애인의 천공성 충수돌기염의 천공 위험요인들이 장애인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.</p> <p>도구 및 방법: 본 연구 대상자는 1989년부터 2002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록을 장애인 943,095명과 비장애인 1,886,190명 중 2003년 단순 충수돌기염과 천공성 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한 장애인 1,595명과 비장애인 3,068명이었다. 단순 충수돌기염과 천공성 충수돌기염의 구분은 한국표준질병분류체계 10판을 이용하였으며 단순 충수돌기염은 K35.9로, 천공성 충수돌기염은 K35.0과 K35.1로 구분하였다. 분석에 이용한 변수는 성, 연령, 의료보장유형, 거주지역, 당뇨병 및 정신질환의 병력, 치료병원 등이며,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과 이동성 장애 여부를 조사하였다. 분석은 빈도분석, 카이제곱검정 및 위험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.</p> <p>결과: 충수돌기염의 천공률은 장애인은 37.6%, 비장애인은 34.0%로 장애인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. 장애인은 연령이 높을 수록, 당뇨병 기왕력이 있는 경우, 종합병원에서 치료한 경우, 뇌병변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진 경우 및 이동성 장애가 있는 경우 천공률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</p> <p>결론: 이 연구는 충수돌기염의 천공률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더 높게 나왔으며,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천공 위험요인이 장애인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으며, 그 외에도 뇌병변장애와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동성 장애가 있는 경우 천공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. 이는 장애인은 뇌병변장애와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다른 장애유형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더 낮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, 이동성 장애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. 충수돌기염의 천공률은 앞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험집단의 의료이용 정도에 대한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.</p> | | | | | |